

노인되기와 빈곤 -빈곤 궤적의 연령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이지인¹, 주은선^{2*}

¹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²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ging and Poverty

-Focusing on Age Group Differences in Poverty Trajectories-

Ji-In Lee¹, Eun-Sun Joo^{2*}

¹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 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 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차원 빈곤, 종단연구, 빈곤궤적, 잠재성장모형, 연령집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middle age to old ag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Data(2006 ~ 2018), we examined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multi-dimensional poverty for 13 years by prospective elderly and middle aged group aged 55 or older in 2006 through the potential growth model. Multidimensional poverty is divided into seven dimensions in four areas: economy (income, employment), environment (residential), health, social culture (leisure, family relations, and social re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multi-dimensional poverty decreased with time, and the overall poverty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re-old and the aver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dition model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affecting poverty change were found in the order of spouse free and educational level for the elderly and gender and education level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multi-dimensional poverty is gradually improving, but the rate of change and the variables that affect each age group are different.

Key Words : Multidimensional Poverty, Longitudinal Study, Poverty Trajectory, Potential Growth Model, Age Group

*Corresponding Author : Eun-Sun Joo(skyesjoo@gmail.com)

Received February 26,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3, 2020

Published May 28, 2020

1. 서론

1.1 서론

이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한국 노인빈곤의 특성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노인기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상태 변화에 연령 집단별 차이가 작동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빈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생애 단계에서의 빈곤이다. 나이가 들에 따른 근로소득 중단과 질병 발생, 가족구성 변화 등 삶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기 빈곤 위험은 복지국가가 제어하고자 했던 오래된 사회적 위험이었다. 노인기 이전의 경제 상태는 노인기의 그것과 상당한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낮은 은퇴 연령, 은퇴에 대한 준비 부족, 비자발적 은퇴의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은퇴는 개인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다[1].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근로 연령층의 빈곤율과 퇴직연령층의 빈곤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 국가는 오히려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청장년 빈곤율에 비해 5.4배 더 높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생애주기별 빈곤율이 평탄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거가 이루어지는 51세 이후 시기부터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2]. 이는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나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지, 개선, 악화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생애 후반부의 빈곤으로서 노인빈곤이 가지는 연속성과 변화라는 동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즉, 대부분 연구들은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태적인 관점에서 그 특징을 묘사하였다. 이에 노인기 빈곤문제를 특정 시점에서의 단면뿐만 아니라, 나이 들의 과정(Ageing)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양상이 어떠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빈곤은 한편으로는 노인기 진입과 함께 은퇴, 소득하락을 경험하면서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기의 빈곤은 이전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의해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노인기와 이전 시기의 빈곤문제를 생애 과정을 연결시켜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빈곤 특성을 다차원 빈곤 관점에서 조명한다. 정의진(2019)과 김수영·박병현(2018) 등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 노인은 소득이나 건강 등 특정한 차원에서의 단편적인 빈곤이 아니라, 환경이나 관계적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서 다차원으로 결핍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빈곤에 국한되지 않는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생활상의 결핍을 탐색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들, 즉 한국 노인빈곤 문제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복지상태를 더욱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다차원 빈곤 관점을 채택하여 노인빈곤 특성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생애 과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방향과 정도 등에 있어서 연령 집단별 차이에 주목하여 다차원 빈곤 측면에서 나이 들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특히 빈곤의 변화를 탐구하고자 한다. 생애 후반기의 한국사회 성인들은 나이에 따라 빈곤 지위 및 특성에 어떤 변화를 경험해 왔는가? 다차원 빈곤 측면에서 빈곤특성에 어떤 변화를 경험해 왔는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빈곤이 어떠한 변화 궤적을 보이는지를 다차원 빈곤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빈곤 상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규명되지 않았던, 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생애 후반기에 빈곤이 발생하거나 유지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그 영향 요인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이는 지금의 광범위하고 극심한 노인빈곤 현상을 동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노인빈곤 문제에 기존과는 다른 시간 지평에서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노인기로의 이행에 따른 다차원 빈곤 궤적은 연령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질문 2. 노인기로의 이행에 따른 다차원 빈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검토

2.1 노인빈곤 특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 노인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소득빈곤 측면에서 한국 노인빈곤의 실태 및 특성을 밝히거나[5-7], 혹

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8-12], 기존의 소득보장제 도들의 효과를 이전소득의 노인빈곤 감소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하고[2, 13-15],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연구[2, 13]들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한국 노인빈곤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며[6, 8, 9],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빈곤율과 빈곤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최옥금(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이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빈곤율이 2배 정도 낮게 나타나고[8], 경제활동참여 노인의 직종 및 정규직 여부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9].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장애 여부, 가구 형태(독거여부)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고용과 빈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시도되었는데, 먼저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여부와 빈곤관계를 살펴본 연구[8, 18]에 의하면,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 시간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의 과거 직업력에 관련된 변수가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9, 16, 17]에 의하면 과거 직종 및 정규직 여부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근로빈곤 가능성과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가능성이 높으므로[16],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고용형태도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비정규노동으로 4년이 경과하여도 정규직으로 될 경우는 9% 미만이며 시간이 지나도 정규직화 될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으며[17],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이동이 쉽지 않고 일단 비정규직에 속하게 된 노동자는 정규직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비정규노동자는 가족이 모두 빈곤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6]. 또한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정도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이 비정규직이 구성하고 있다[18]. 비정규직 입직 경험은 정규직으로의 탈출이 어려우며 비정규직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세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19].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인빈곤 관련 연구는 다각화되기 시작했다. 노인 빈곤의 다차원인 면에 관심을 가진 노인의 다차원빈곤에

관한 연구[20-22], 그리고 노인빈곤의 젠더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23-32]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횡단연구들로, 빈곤요인을 밝히거나 집단 간 차이를 성별 격차에 대한 단순비교로써 빈곤의 변화 궤적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빈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빈곤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2.2 노인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점의 연구

노인빈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생애 단계에서의 빈곤으로 생애 과정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빈곤 위험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과거 노동경력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빈곤 요인들은 세대 간 이전을 통하여 고착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의 생애사적인 진행 과정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1]. 즉, 한 개인의 빈곤 여부는 개인이 속한 가족적 특성과 능력, 교육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애사적 진행구조 내에서 빈곤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적 접근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살펴본 연구[9, 10]가 있으나, 이 연구들은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기로 진입하는 나이 들의 과정에서 노인의 다양한 빈곤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석상훈(2009)은 노인빈곤이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노인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의 노인세대까지 포함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빈곤의 동태성을 분석한 연구[8, 34-36]와 한국노인의 빈곤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7, 37]등이 있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년 자료를 이용, 빈곤 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이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 양상이 나타나지만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 장기빈곤층이 많으며,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이 노인가구로 나타났다[34]. 즉, 노인 가구는 빈곤탈출과 빈곤 재 진입을 모든 면에서 장기빈곤의 경향이 가장 강해서 빈곤탈출이 어렵고 빈곤을 탈출하여도 재진입하는 경향이 강해 장기빈곤층의 주

요한 구성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991-2001년의 중년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형태에 따른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저학력 가구주 일수록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빈곤상태에 머물러있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35]. 다음으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1990-2002)를 사용하여 연령집단별로 각 집단별 빈곤동향을 비교분석한 연구[8]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 및 빈곤위험도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았고, 노인의 경제활동참여는 노인빈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연령대의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위험도가 매우 낮고 여성노인 단독가구와 손자녀 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구원과 살고 있는 노인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동태적 관점의 노인빈곤 연구 중 일부는 빈곤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7, 36, 37]. 먼저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를 이용하여 절대적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36]결과 상당수의 빈곤계층은 단기간 빈곤상태에 머물면서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특정시점에서 파악 할 때는 빈곤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빈곤상태에 놓여있으며,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주의 경우, 가구 소득액의 변화가 빈곤 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나타나며 사적 이전소득액의 변화가 공적이전 소득액, 재산소득액의 변화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노인가구주 빈곤이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전 소득액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성우 외(2008)는 한국노동패널조사 4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만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속가구 특성과 빈곤탈피가구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교육수준, 근로소득 증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소득 및 사적이전 소득 등이 빈곤탈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 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 일수록, 혼자 사는 노인 단독가구 일수록 빈곤이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와 8차년도 자료를 결합하여 한국노인의 빈곤관련 특성 변화를 살펴본 이상진·김윤정(2019)은 8년간 현재의 노인집단 중 빈곤진입집단, 빈곤탈출집단, 빈곤지속집단 등 3집단으로 구분하여 거주지, 건강, 관계 등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만성질환 및 거주지 이동이 증가하며 여성가구주 가구 및 독신

가구의 빈곤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노인의 빈곤 진입과 지속기간, 탈피 여부 등 빈곤의 시점이나 지속성 여부에 관심을 두고 노인빈곤이 지속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노인빈곤을 주로 소득 및 경제적 측면의 빈곤에만 한정하여 노인이 처한 다양한 생활환경에서의 배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3 다차원 빈곤 : 노인의 빈곤을 다차원으로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빈곤에 대한 개념이 소득과 고용 등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다차원 빈곤 접근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다차원 분석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노인은 다차원 빈곤 중 소득 차원과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여 여성노인, 초 고령 노인, 대도시 거주 노인, 초졸 이하 학력의 노인, 사별, 이혼, 별거 노인,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국민연금 비 수급 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각각 그 비교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다차원 빈곤을 통한 노인의 빈곤을 파악한 연구들[3, 21, 38]에 따르면 노인빈곤은 생활영역에서의 다양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지만, 공통적으로 소득 측면에서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배제[26], 다차원 빈곤의 구조 [21], 실태분석 [20, 38], 다차원 빈곤유형[3] 등을 통해 한국노인의 다차원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근로, 교육, 제도, 주거, 문화, 사회적 관계망,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26]에서는 교육 및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배제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2012) 역시 다차원 접근을 통해 노인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유형, 거주지역의 하위집단별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빈곤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노동 빈곤율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 51.7%, 소득 46.7%, 자산 35.6%, 주거 32.9%, 사회적 참여 2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차원 수는 평균 2.64개로 대부분의 노인이 2~3개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며 대상자의 48.8%의 노인이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노인, 연령이 높아질

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노인 단독가구나 소손가구일 경우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0]. 특히, 김순미(2018)는 빈곤층 노인과 중산층 노인의 소득빈곤과 다차원 빈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층 노인가구의 평균 빈곤차원수가 중산층 노인가구보다 2배 정도 높았으며, 빈곤차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 노인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남성), 연령,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이었으며, 중산층 노인 가구는 가구주의 성별(남성), 교육수준(중고등학교), 혼인상태(유배우), 거주 지역으로 나타나, 중산층 노인가구의 빈곤차원수에는 연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층 노인 가구는 고용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주거 빈곤율이 가장 낮았으며, 중산층 노인 가구는 관계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고용 빈곤율이 가장 낮았다[38]. 한편,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인의 다차원 빈곤을 파악한 연구에서도 각 차원별 빈곤율은 소득 51.9%, 건강 51.2%, 사회참여 51.2%, 자산 39.3%, 주거 26.7%, 대인관계 17.0%, 노동 13.5%,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의 절반이상이 소득, 건강, 사회참여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노동 차원은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개인의 다차원 빈곤 차원 수는 평균 2.12개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에 비해 다중빈곤집단은 특히, 소득 빈곤율이 매우 높고 주거 차원의 결핍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들 연구들은 노인의 빈곤을 소득을 비롯한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건강,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하고, 각 차원별 빈곤의 수준이 다름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변화를 살펴볼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대상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종단자료를 통한 노인의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3년간의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 노인이 되는 이행기에서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

3.1.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3차(2006~2018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전국 조사를 기초로 하여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소득, 지출 및 재산과 추가적인 분석자료(주거상황, 부가조사 등)와 서비스 대상자별(노인, 여성가구주, 장애인 등)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빈곤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조사기간 내에 가구주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06년도 1차 조사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6,155명이며, 그 중에서 13년간 다차원 빈곤에 모두 응답한 대상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분석대상자 수는 2,575명이다. 분석 대상자 중 예비노인(55-64세)은 1,232명(43.3%), 전기노인은 1,343명(47.2%)이다.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후기노인은 272명(9.6%)으로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에 비해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들 집단은 제외하고, 빈곤변화궤적 비교집단으로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을 선택하였다.

3.1.2 주요 변수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에 대한 성별, 교육수준, 장애유무, 배우자 유무, 독거여부, 최초 고용형태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성별은 여성 1, 남성 0으로 재구성하였고, 교육수준은 본 연구의 대상이 55세 이상 중·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졸 미만 1, 고졸 이상 0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유무는 장애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독거여부는 독거가구일 경우 1, 다인가구일 경우 0으로 구분하고, 최초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외에도 기타(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자 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두 개의 더미변수로 규정하였다. 먼저 최초 고용형태 1 더미변수는 정규직 1로, 기타(비정규직과 기타 포함) 0으로 구분하고, 최초 고용형태 2 더미변수는 비정규직 1로 기타(정규직과 기타 포함) 0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종속변수 : 다차원 빈곤

다차원 빈곤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7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가)소득 : 소득빈곤은 상대적 빈곤 개념이 반영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가구 1, 그보다 높은 소득 수준의 경우를 비 빈곤 가구 0으로 구성하였다.

나) 고용(일자리) : 고용빈곤은 노동시장에서 일할 의지가 있지만 실업 상태일 경우를 고용빈곤 1, 그 외의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분하였다.

다) 주거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대한 4항목 중 긍정 문항인 ㉗㉘㉙를 역 코딩 한 후 4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예'에 응답한 경우를 주거 빈곤 1로, 그 외의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성하였다.

㉗ 연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㉘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㉙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㉚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라) 건강 :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에 대한 5점 척도 항목 중 건강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를 건강빈곤 1, 나머지에 응답한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성하였다.

마) 여가생활 :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에 대한 5점 척도 항목 중 여가생활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여가빈곤 1, 나머지에 응답한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성하였다.

바) 가족관계 :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에 대한 5점 척도 항목 중 가족 관계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가족관계 빈곤 1, 나머지에 응답한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성하였다.

사) 사회적 친분 관계 :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에 대한 5점 척도 항목 중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에서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에 응답한 경우 사회적 관계 빈곤 1, 나머지에 응답한 경우를 비 빈곤 0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각 빈곤 변수는 1점 혹은 0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변수들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차원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Table 1. Poverty Lines by Dimensions and Indicator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Domain	Dimension	Indicators	Poverty line
Economy	Income	Household income level	Less than 60% of equalized median income
	Employ	Main economic participation	Unemployment
Environment	Dwelling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 of house 4 questions	If you answered question c.
Health	Health	Health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usually dissatisfied
Society culture	Leisure	Leisur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usually dissatisfied
	Family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usually dissatisfied
	Social Friendship	Social Friendship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usually dissatisfied

Table 2. Key variabl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used in the analysis

	Variable name	property	Operational Defin
Dependent variab	Multidimensional poverty	Continuous	Poverty = the higher the score of 1-7, the higher the level of multidimensional poverty. 0 = non-poverty
	gender	Dummy	F = 1, M = 0
Independent varia	Education level	Dummy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 1,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e = 0
	Health (Disability)	Dummy	Fault = 1, non-disability = 0
	Marital status (Spouse Free)	Dummy	Spouse no = 1, spouse = 0
	Type of furniture (Who lives alone)	Dummy	Single households = 1, multi-family households = 0
	Initial employment form	Initial employment form 1	Dummy
Initial employment form 2		Dummy	Temporary Workers = 1, Others (regular employees + employers, self-employed, unpaid family workers) = 0

3.2 분석방법 : 잠재성장모형

본 연구에서는 차원별 빈곤 실태와 다차원 빈곤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Spss 22.0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집단별 다차원 빈곤 수준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기로의 이행에 따른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 Amos 구조방정식을 통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어떤 자료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그 변화 추이를 모형화 할 수 있고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의 설명변수를 시간의 함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별로 측정 시점이 다르고 결측치가 존재하는 패널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다차원 빈곤 변화궤적이 있어서 연령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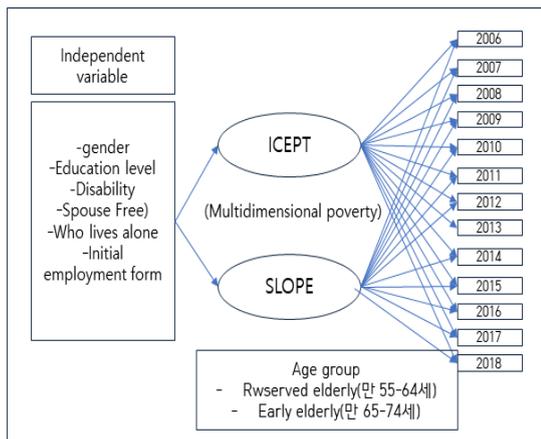


Fig. 1. Analysis Model: Multidimensional Poverty by Age Group

4. 분석 결과

4.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먼저 연령대별 분포는 분석대상연령인 만 55세~74세 이하 2,575명 중 예비노인(만55세~64세 이하)이 1,232명(47.8%), 전기노인(만65세~74세 이하)이 1,343명(52.2%)으로 연령집단별 대상자 수가 비슷하였다. 성별로는 전 연령집단에서 여성(1,617명, 62.8%)이

남성(958명, 37.2%)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미만의 학력 수준이(2,004명, 77.8%) 고졸이상의 학력(571명, 22.2%)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는 625명(24.3%)로 중·고령자의 약 1/4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하나이상의 장애를 가진 노인은 238명(9.2%)로 전 연령집단별로 분포가 비슷하였다. 다른 동거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가구는 407명(15.8%)으로 전기노인(20.9%)이 예비노인(10.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15세 이상 이후 최초의 고용형태를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413명, 16.0%)과 정규직(584명, 22.7%)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대상자(1,578명, 61.3%)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Unit: Persons, %)

Classification		Reserved elderly	Early elderly	All
		(55-64 years old)	(65-74 years old)	(55-74 years old)
		%	%	%
gender	F	758 (51.5)	859 (64.0)	1,617 (62.8)
	M	474 (38.5)	484 (36.0)	958 (37.2)
Education level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883 (71.7)	1,121 (83.5)	2,004 (77.8)
	higher than high school graduate	349 (28.3)	222 (16.5)	571 (22.2)
Spouse Free	Spouse no	237 (19.2)	388 (28.9)	625 (24.3)
	Spouse	995 (80.8)	955 (71.1)	1,950 (75.7)
Disability	Fault	115(9.3)	123 (9.2)	238(9.2)
	non-disability	1,117 (90.7)	1,220 (90.8)	2,337 (90.8)
Type of family	Single households	126 (10.2)	281 (20.9)	407 (15.8)
	multi-family households	1,106 (89.8)	1,062 (79.1)	2,168 (84.2)
	Irregular workers	242 (19.6)	171 (12.7)	413 (16.0)
Initial employment form	Full-time	351 (28.5)	233 (17.3)	584 (22.7)
	Other	639 (51.9)	939 (69.9)	1,578 (61.3)
	All	1,232 (47.8)	1,343 (52.2)	2,575 (100)

* Other : Employers, self-employed, unpaid family workers

각 조사 차수의 다차원 빈곤 점수는 각 연령집단별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노인집단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된 13차의 평균이 1.16(SD=1.10)로 1차의 평균 1.88(SD=1.3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의 기울기가 선형적이었다. 연도별 다차원 빈곤의 평균은 다음과 같

다. 1차 조사시점 당시 예비노인집단의 다차원 빈곤 수준은 평균 1.88 (Table 4 참고)로 평균 약 2개 정도의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값이 떨어져 2018년 1.16으로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기노인집단에서는 가장 최근 조사된 13차의 평균이 1.58(SD=1.10)로 1차의 평균 2.27(SD=1.37)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의 기울기가 선형적이었다. 연도별 다차원 빈곤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시점 당시 전기노인집단의 다차원 빈곤 수준은 평균 2.27 (Table 5 참고)로 예비노인(1.88)보다 조금 높고 평균 약 2개 이상의 다차원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값이 떨어져 2018년 1.58로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by year (Spare elderly, N = 1,232)

Degree (year)	Average	Standard Deviation	Dwarf	Kurtosis
1(2006)	1.88	1.38	-.13	.58
2(2007)	1.68	1.35	.09	.70
3(2008)	1.63	1.29	.25	.70
4(2009)	1.47	1.28	.17	.73
5(2010)	1.32	1.22	.48	.89
6(2011)	1.32	1.24	.50	.92
7(2012)	1.25	1.18	.38	.87
8(2013)	1.26	1.17	.45	.87
9(2014)	1.33	1.20	.40	.85
10(2015)	1.12	1.09	1.81	1.11
11(2016)	1.14	1.08	.84	.97
12(2017)	1.12	1.10	.70	.90
13(2018)	1.16	1.10	.68	.95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by year (electrical elderly, N = 1,343)

Degree (year)	Average	Standard Deviation	Dwarf	Kurtosis
1(2006)	2.27	1.37	.39	-.21
2(2007)	2.06	1.27	.42	.08
3(2008)	1.97	1.24	.41	-.13
4(2009)	1.87	1.23	.47	.01
5(2010)	1.70	1.17	.47	-.06
6(2011)	1.74	1.21	.54	.00
7(2012)	1.64	1.14	.47	-.04
8(2013)	1.64	1.15	.61	.24
9(2014)	1.80	1.16	.50	.17
10(2015)	1.58	1.14	.73	.68
11(2016)	1.56	1.11	.76	.75
12(2017)	1.66	1.19	.88	1.06
13(2018)	1.58	1.10	.78	.79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집단에서 확인된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 빈곤 수준이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진다는 다차원 빈곤 관련 선행연구(이수정, 2012; 김문걸·김성아, 2018; 황남희 외, 2015)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13년(2006년~2018년)간의 다차원 빈곤 차원수에 대한 연령집단별 프로파일 비교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고). 다차원 빈곤수준은 2006년 1차 시점 당시 초기값이 전기노인(2.27)이 예비노인(1.8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은 각각 평균적으로 1.16개, 1.58개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평균 1개 이상 차원별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값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ultidimensional Poverty Averages by Age Group

group \ Degree (year)	Reserved elderly (55-64 years old)	Early elderly (65-74 years old)	All (55-74 years old)
1(2006)	1.88	2.27	1.87
2(2007)	1.68	2.06	1.83
3(2008)	1.63	1.97	1.77
4(2009)	1.47	1.87	1.73
5(2010)	1.32	1.70	1.72
6(2011)	1.32	1.74	1.68
7(2012)	1.25	1.64	1.58
8(2013)	1.26	1.64	1.53
9(2014)	1.33	1.80	1.48
10(2015)	1.12	1.58	1.43
11(2016)	1.14	1.56	1.38
12(2017)	1.12	1.66	1.33
13(2018)	1.16	1.5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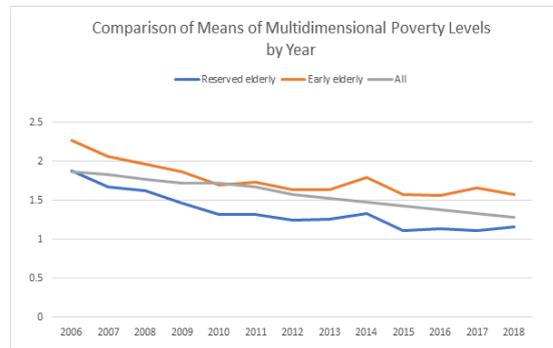


Fig. 2. Changes in Multidimensional Poverty Levels by Age Group

4.2 연구모형 분석

4.2.1 무조건적 모형분석

무조건적 모형분석은 변수가 측정할 변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모형인 '무변화모형'과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모형인 '선형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42]. 본 연구에서는 연령집단별로 무조건모형과 조건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1) 예비노인 : 만 55세-64세 이하

예비노인집단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선형모형이($\chi^2=322.59$, $df=78$, $p<.001$, $CFI=.97$, $TLI=.97$, $RMSEA=.05$), 무변화모형($\chi^2=1171.87$, $df=81$, $p<.001$, $CFI=.85$, $TLI=.85$, $RMSEA=.11$)에 비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형모형에서 다차원 빈곤 변수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다차원 빈곤의 초기 값 평균은 1.68($p<.001$), 분산은 1.02($p<.001$)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64($p<.001$), 분산은 .56($p<.001$)로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는 처음 1차 조사시점인 2006년부터 13차 조사시점인 2018년에 이르는 동안 연구대상자의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변화율이 대상자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차원 빈곤 수준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51($p<.001$)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다차원 빈곤 수준의 초기 값이 클수록 그 변화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반에 다차원 빈곤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다차원 빈곤 수준이 더 작은 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형모형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Linear Model Resul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Variable	Average	Variance	Co variance
Multidimensional poverty	ICEPT	1.68***	1.02***
	SLOPE	-.64***	.56***

2) 전기노인 : 만 65세-74세 이하

전기노인집단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선형모형이($\chi^2=378.17$, $df=78$, $p<.001$, $CFI=.95$, $TLI=.95$, $RMSEA=.05$), 무변화모형($\chi^2=1053.25$, $df=81$, $p<.001$, $CFI=.85$, $TLI=.85$, $RMSEA=.10$)에 비해 더 적합한 것

로 확인되었다.

선형모형에서 다차원 빈곤 변수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다차원 빈곤의 초기 값 평균은 2.04($p<.001$), 분산은 .82($p<.001$)로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변화율의 평균은 -.55($p<.001$), 분산은 .58($p<.001$)로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는 처음 1차 조사시점인 2006년부터 13차 조사시점인 2018년에 이르는 동안 연구대상자의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변화율이 대상자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차원 빈곤 수준의 초기 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41($p<.001$)로 부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다차원 빈곤 수준의 초기 값이 클수록 그 변화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반에 다차원 빈곤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다차원 빈곤 수준이 더 작은 쪽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형모형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Linear Model Resul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Variable	Average	Variance	Co variance
Multidimensional poverty	ICEPT	2.04***	.82***
	SLOPE	-.55***	.58***

4.2.2 조건적 모형 분석 : 예비노인 (만55세-64세 이하)

중·고령자의 나이들에 따른 다차원 빈곤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차원 빈곤 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예비노인 연령집단에서의 빈곤궤적 결과(Table 9 참고) 중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먼저 배우자유무는 초기 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1$, $p<.001$)을,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가가 없는 경우에는 빈곤 초기 값이 높고, 빈곤 감소도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빈곤 초기 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3$, $p<.001$)을, 변화율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 초기 값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이 감소 변화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장애여부는 빈곤 초기 값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7$, $p<.001$)을 미치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있을수록 빈곤 초기 값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장애여부가 빈곤 감소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빈곤하지만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의 빈곤 초기 값에 정적 영향($\beta=.09, p<.01$)을 미치고 있어 다인가구에 비해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반면에 예비노인집단에서는 만15세 이후 최초 고용형태는 빈곤수준 및 빈곤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빈곤 초기 값에는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변화율에는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노인 연령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배우자유무가 빈곤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아직은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집단이며, 이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결정에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소로 학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8]. 또한, 이 연령집단에서는 성별이 빈곤에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노인의 빈곤위험이 높고, 여성노인이 가진 특성들이 다른 변수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성별의 통계적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기존의 논의들(홍백의, 2005; 최옥금, 2007)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9.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rajectory : 55-64 Years Old (N=1,232)

	Route	B	SE	β
ICEPT	← gender	.18	.06	.09**
SLOPE	← gender	-.02	.07	-.02
ICEPT	← Education level	-.50	.07	.23***
SLOPE	← Education level	.17	.08	.10*
ICEPT	← Spouse Free	-.53	.10	.21***
SLOPE	← Spouse Free	.44	.11	-.23***
ICEPT	← Disability	.60	.10	.17***
SLOPE	← Disability	.01	.11	.00
ICEPT	← Type of furniture	.30	.13	.09*
SLOPE	← Type of furniture	.02	.14	.01
ICEPT	← Initial employment form 1	.14	.07	.06
SLOPE	← Initial employment form 1	.01	.08	.00
ICEPT	← Initial employment form 2	.10	.08	.04
SLOPE	← Initial employment form 2	-.11	.08	-.06

주: *** : p<.001, ** : p<.01, * : p<.05

4.2.3 조건적 모형 분석 : 전기노인 (만 65세-74세 이하)

전기노인 연령집단에서의 빈곤궤적 결과 (Table 10 참고) 중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초기 값에는 정적 영향($\beta=.13, p<.001$)을,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beta=-.11, p<.05$)을 미치고 있어, 여성노인의 초기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수준이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빈곤 초기 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4, p<.001$)을 미치므로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Influence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rajectory : 65-74 Years Old (N=1,343)

	Route	B	SE	β
ICEPT	← gender	.24	.06	.13***
SLOPE	← gender	-.18	.07	-.11**
ICEPT	← Education level	-.58	.08	.24***
SLOPE	← Education level	.18	.10	.09**
ICEPT	← Spouse Free	-.14	.10	-.07
SLOPE	← Spouse Free	.10	.12	.06
ICEPT	← Disability	.29	.10	.10***
SLOPE	← Disability	-.06	.11	-.02
ICEPT	← Type of furniture	.36	.11	.16***
SLOPE	← Type of furniture	-.15	.13	-.08
ICEPT	← Initial employment form 1	.06	.08	.03
SLOPE	← Initial employment form 1	-.10	.10	-.05
ICEPT	← Initial employment form 2	.40	.08	.15***
SLOPE	← Initial employment form 2	-.29	.10	-.13

주: *** : p<.001, ** : p<.01, * : p<.05

장애여부는 빈곤 초기 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0, p<.001$)을 미쳐, 장애가 있는 노인일수록 빈곤수준이 높으며,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 역시 빈곤 초기 값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독거가구의 빈곤 수준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배우자는 빈곤 초기 값 및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노인 집단에서는 배우자유무가 빈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만15세 이후 최초 고용형태는 비정규직=1, 기타(정규직+자영업, 고용자, 무

급가족중사)=0으로 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빈곤 초기 값에는 정적($\beta=.15$, $p<.001$)으로, 변화율($\beta=-.13$, $p<.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15세 이후 최초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었던 노인의 빈곤 수준이 정규직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한 노인보다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빈곤 변화양상이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빈곤 초기 값에는 교육수준과 독거여부가 빈곤 변화율에는 성별과 교육수준이 순서대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5. 논의 및 결론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주요한 대응은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빈곤위험 분산이었다. 중·고령자의 본격적인 노인기로의 이행에서 다차원 빈곤(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는 생활조건 지속성이란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노년기 이행과정에서의 노인의 소득빈곤의 변화 추이와 다차원 빈곤 궤적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노년기 빈곤에 대해 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건강, 사회문화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빈곤 변화 궤적에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장애여부, 독거여부, 최초고용형태)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노년기 빈곤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집단별(예비노인, 전기노인)로 변화 궤적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3차까지 13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두 집단 각각의 빈곤 변화율을 살펴보았을 때, 다차원 빈곤 변화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이수정(2012), 김문길·김성아(2018), 황남희 외(2015)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무조건적 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집단 모두 초기 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유의하였으며, 이는 처음 1차 조사시점인 2006년부터 2018년 13차 조사시점에 이르는 동안 다차원 빈곤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변화율이 대

상자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값과 변화율간의 공분산 값이 두 집단 모두 음수(예비노인 : $-.51$ $p<.001$, 전기노인 $-.41$ $p<.001$)라는 점을 통해 1차 조사 시점 당시 다차원 빈곤 수준이 높은 고위험 응답자들이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빈곤 수준 감소량이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복지의 발달로 다차원 빈곤 수준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차원에서 빈곤 경험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적 개입이 여전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다차원 빈곤의 변화궤적을 확인 한 결과, 실제로 빈곤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 초기 값이 예비노인이 1.88, 전기노인이 2.27 이었으나, 2018년도 기준 예비노인이 1.16, 전기노인이 1.58로 나이가 많을수록 다차원 빈곤수준이 조금 더 높은 양태를 보였다. 이는 노인을 이질 집단으로 간주하고 연령층 별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최근의 연구[21] 추세를 지지하는 것이며 각 연령집단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먼저 예비노인의 경우 빈곤 변화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빈곤 구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직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부부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8]. 다음으로는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력이 인적자본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지속시켜 노년기의 빈곤 가능성도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8].

한편,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예비노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비노인의 빈곤 변화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우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수정(2012)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며, 최현수와 류연규(2003), 홍백의(2005)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최초 고용형태는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초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빈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변화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변화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수준이 높다는 이수정(2012)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비노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역시 전기노인의 빈곤 변화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전기노인의 경우 은퇴 전 직업과 은퇴 후 재취업 시 교육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노인을 빈곤으로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39].

고령노인 코호트, 저학력 노인, 독신노인, 불안정고용 이력을 가진 노인들이 생애 과정에 따라 빈곤이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빈곤문제 대응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의 빈곤위험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차원빈곤은 소득보장과 함께 주거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상담, 여가활동 및 사회적 교제활동 기회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지원이 적어도 노인기에 진입하면서 바로 제공되는 것이 다차원적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 연구의 구조적인 한계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빈곤 차원과 지표 선정, 빈곤선 설정에서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다음으로 전체 다차원 빈곤이 아닌 각 차원별 빈곤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에 있어서 남녀 빈곤 차이가 존재함에도 젠더차이를 함께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의 특수성에 대해 정교하게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13차까지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나이들에 따른 노인의 다차원빈곤 궤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원을 넘어 빈곤에 대한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배제의 현실을 확인했다는 점, 예비노인과 전기노인의 연령집단별 빈곤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노인기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빈곤의 변화 양상에 대해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1] S. H. Park. (2011). *The Effect of Subjective Perception on the Change of Status of Retired Men on Family Relationship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 Y. J. Yeo. (2019). Elderly poverty and retirement income guarantee in Korea.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364, 1-8.
- [3] S. Y. Kim & B. H. Park. (2018). A Study on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and Social Security of Korean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45(4), 1-30.
- [4] N. H. Hwang, J. H. Kim & J. W. Jung. (2015). Longitudinal Study on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orean Elderly; Comparison of Welfare Service Use Experiences by Poverty by Dimension. *Korean Welfare Panel Conference*, 8, 255-275.
- [5] S. W. Kim & Y. M. Cho. (2006). An Analysis of Income Composition and Poverty Rate of Elderly Households in Korea-Focused on the share of earned income and public pension income by household type and poverty elimination effect. *Social Welfare Research*, (29), 5-37.
- [6] S. H. Suk & H. S. Kim. (2012). Analysis of Determinants and Determinants of Elderly Poverty-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Lifetime Work History. *Finance Research*, 5(3), 99-124.
- [7] S. J. Lee & Y. J. Kim. (2019). Poverty Status and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Relationship with mental and social health. *Journal of the Arts, Humanities and Social Convergence Multimedia*, 8(12), 771-779.
- [8] H. S. Choi & Y. K. Ryu. (2003). A Study on the Trend of Elderly Poverty and Poverty. *Composition in Korea. Korean age*, 23(3), 143-160.
- [9] B. E. Hong. (2005). A Study on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in Korea. *Korean Social Welfare*, 57(4), 275-290.
- [10] O. K. Choi.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lderly Poverty_Analyze using Panel Data. *Korean Social Welfare*, 59(1), 5-25.
- [11] J. S. Choi. (2009). Causes of Poverty and Improvement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3(1), 457-476.
- [12] J. H. Mo & C. H. Ham. (2009). Multi-layer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Poverty. *Social research*, 2(2), 175-194.
- [13] Y. J. Yeo. (2013). Analysis of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overty and Public Transfer by Elderly Household Type: Focused on Policy Implications. *Critical Social Policy*, 40, 185-219.
- [14] H. J. Jang. (2013). Effects of Basic Old-age Pension Reduction on Elderly Poverty. *Modern society and administration*, 23(2), 121-146.
- [15] B. S. Seo. (2013). Review of the establishment plan of the minimum income security system for old age to solve the elderly poverty. *Poverty Free World Research Report*, 1-20.
- [16] J. Y. Chang & S. K. Yang. (2007) Non-standard employment in view of social exclusion. *Labor Policy Research*, 7(1), 1-22.
- [17] S. K. Lee & J. H. Yoon. (2007). Can irregular workers

- be converted to full-time workers?.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13(2), 81-107.
- [18] H. Y. Baek & I. H. Ko.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Irregular Labor and Working Poverty: Emphasis on Wage Discrimination and Working Hours. *Labor Policy Research*, 10(3), 87-117.
- [19] Y. N. Kim. (2015). *Occupational Movement of Non-regular Workers*. Intragenerational Transfer and Intergenerational Success, Ph.D.
- [20] S. J. Lee. (2012). *A Study on Multidimensional Poverty Analysis and Influencing Factors of Korean Elderly*.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21] E. J. Jung. (2012). *Multidimensional Poverty Structure Analysis of Korean Elderly*.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2] M. G. Kim & S. A. Kim. (2018). Multidimensional Poverty Changes and Intergenerational Comparisons. *Korean Society of Social Security and Economics Joint Conference*, 1-39.
- [23] S. H. Choe. (1999). Causes of Poverty among Elderly Women in the Life Cycle. *Korean Family Welfare*, (3), 187-211.
- [24] H. K. Choi. (2005). Analyzing the Life and Poverty Formation of Elderly Women in Poverty. *Elderly Welfare Research*, (27), 147-174.
- [25] M. S. Jung. (2006). *A Study on the Family Experience and Poverty Process of Low-income Female Households: Focusing on Social Exclusion Perspectiv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6] M. Y. Song. (2008). Poverty of Elderly Women in Korea: From a Gender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Korean Age Studies*, 17, 49-72.
- [27] S. J. Kim. (2007). Gender gap between the causes of poverty and the risk of poverty among female households. *Feminism Studies*, 7(1), 81-122.
- [28] S. E. Suk & J. G. Lim. (2007). Income gaps between women and men and differences in income sources and determinants. *Korean age*, 27, 1-22.
- [29] S. W. Kim.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Elderly Poverty of Female Household in the Welfare State. *Social Security Research*, 26(2), 285-316.
- [30] B. H. Bae. (2012).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Exclusion of Women and Men in Korean Society*.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yeonggi.
- [31] S. Y. Son. (2015). Poverty vulnerability and gender specificity of elderly women. *Gender Research*, 20, 1-30.
- [32] C. J. Lee & J. S. Lee. (2016). Decomposition of Poverty Disparity Factors among Male and Female Households in Elderly Households-Focusing on the Basic Age Pension and Basic Pension. *Korean Welfare Panel Conference*, 9, 3-14.
- [33] S. H. Seok. (2009). Dynamic Analysis of Elderly Poverty. *Social Security Research*, 25(4), 77-99.
- [34] I. H. Ko. (2005). Dynamic Analysis of Poverty: Duration of Poverty and its Determinants. *Korean Social Welfare*, 57(2), 351-374.
- [35] K. S. Kim & J. H. Ban.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and Poverty Experience on Poverty Migration. *Social welfare policy*, 18, 31-54.
- [36] K. J. Hong. (2004). Dynamic Analysis of Poverty: Focusing on the Poverty Cycle. *Social Welfare Research*, 24, 187-210.
- [37] S. W. Bae & S. M. Park. (2008). Factors Aff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Older Households and Elimination of Poverty. *Geriatric Welfare Research*, (42), 291-318.
- [38] S. M. Kim. (2018). A Study on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Household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75-193.
- [39] K. S. Kim & Y. Choi. (2006). Multi-layered Analysis of Determinants of Poverty in Working Classes. *Korean Social Welfare*, 58(2), 119-141.
- [40] K. H. Jung & S. H. Lee. (2015). The Impact of Parental Abus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Cyberflight: Focusing on the Mediating Aggression. *Youth Welfare Research*, 17(4), 171-190.

이 지 인(Ji-In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영남대학교 가정학과(이학사)
- 2005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1년 2월 ~ 2015년 5월 : ㈜이아기 평생교육원 부원장

- 2015년 8월 ~ 현재 : 해밀원경 사회복지학 전임교수 및 보건복지평생교육원 학사처장
- 관심분야 : 복지국가, 소득보장, 정신건강
- E-Mail : leejin1023@naver.com

주 은 선(Eun-Sun Joo)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4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2011년 8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복지국가, 노후소득보장
- E-Mail : skyesjoo@gmail.com